

## ‘케이-콘텐츠·미디어 전략펀드’ 자펀드 운용사 모집

- 2. 12.~3. 5. 모집 공고 4천억 원 이상의 ‘케이-콘텐츠·미디어 전략펀드’ 조성·운용
- 400억 원 이상의 ‘아이피티브이(IPTV) 전략펀드’ 별도 조성 예정
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유인촌, 이하 문체부)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유상임, 이하 과기정통부)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,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2월 12일(수), ‘케이-콘텐츠·미디어 전략펀드(이하 전략펀드)’의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를 한다.

‘전략펀드’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·미디어를 육성하기 위해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.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2일, 정부와 정책금융기관(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), 민간기업[한국방송공사(KBS), 중앙그룹 컨소시엄(SLL), 씨제이이엔엠(CJ ENM), 케이티(KT), 에스케이브로드밴드(SKB roadband), 엘지유플러스(LGU+)]는 출자협약을 체결하고, 1,900억 원의 출자를 확정했다.

### 전략펀드 기반으로 ‘아이피(IP) 확보 펀드’, ‘기술심화 펀드’, ‘프로젝트 펀드’ 조성

이번 공고를 통해서 전략펀드의 모펀드를 기반으로 총 4,000억 원 이상의 자펀드를 운용할 운용사를 선정하며, 최종 선정된 운용사는 ‘아이피(IP) 확보 펀드’, ‘기술심화 펀드’, ‘프로젝트 펀드’를 조성하게 된다.

‘아이피(IP) 확보 펀드(900억 원 출자/2,260억 원 이상 조성)’는 국내 방송·영상 콘텐츠 기업이 지식재산(IP)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(IP) 보유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한다. 또한 ‘기술심화 펀드(400억 원 출자/1,000억 원 이상 조성)’를 통해 인공지능(AI), 시각효과(VFX), 가상현실(VR), 증강현실(AR) 등 방송·영상 기술 기업에 투자하여 방송·영상 관련 기술을 육성한다.

이와 함께 국내 지식재산(IP) 확보를 전제로 대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‘프로젝트 펀드(300억 원 출자/740억 원 이상 조성)’를 통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한다. 프로젝트 펀드 제안서는 연내 수시로 접수한다.

한편, 전략펀드의 협력사업으로 아이피티브이(IPTV) 3사는 ‘아이피티브이(IPTV) 전략펀드(300억 원 출자/400억 원 이상 조성)’를 별도로 조성한다. 이 펀드는 아이피티브이(IPTV) 서비스를 위한 방송·영상 콘텐츠에 투자될 예정이며, 전략펀드와는 독립적으로 운용돼 2월에 운용사가 최종 선정될 계획이다.

전략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운용사 모집 공고는 2월 12일(수) 오후 5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5일(수) 제안서를 접수한 후, 4월 초 자펀드 위탁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. 더 자세한 내용은 성장금융([www.kgrowth.or.kr](http://www.kgrowth.or.kr))과 산업은행([www.kdb.co.kr](http://www.kdb.co.kr))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	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투자과	책임자	과장	진재영 (044-203-2581)
		담당자	사무관	정아봉 (044-203-2582)
담당 부서	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	책임자	과장	이항재 (044-202-6550)
		담당자	사무관	임창민 (044-202-6556)

